

‘범죄행위 목인’ vs ‘표현의 자유’... 경영진, 끝없는 딜레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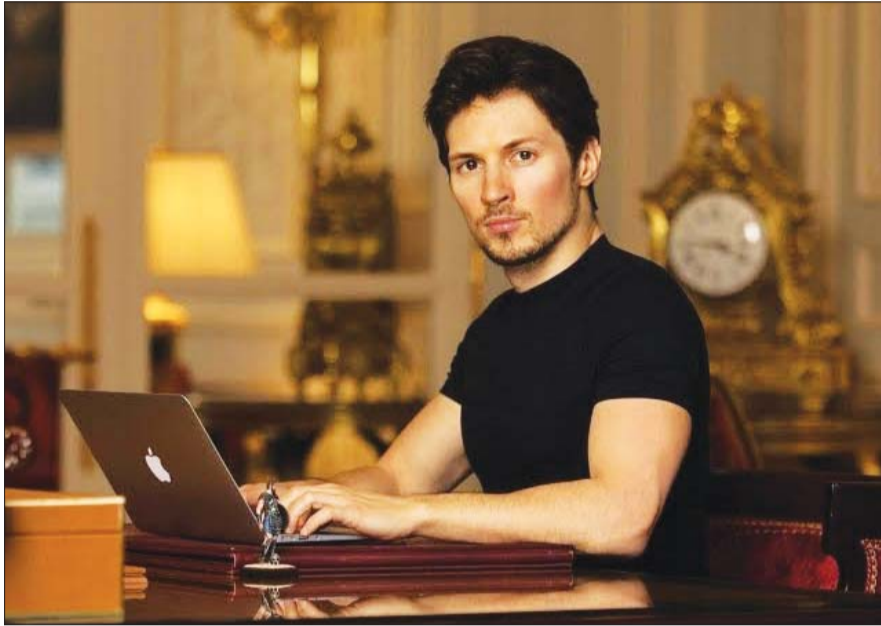
플랫폼 CEO 책임 논란

텔레그램 CEO 체포로 법적 논쟁
플랫폼 내 불법 행위 방치 ‘공범’
경영권·표현의 자유 ‘억압’ 행위
경영진 역할 재정립 필요성 제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이 각종 범죄를 일으켰을 때 플랫폼 운영자(CEO)와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다. 플랫폼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 기업의 경영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할 수 있다는 입장과 플랫폼에서 나타난 다양한 범죄 행위를 목인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CEO와 기업 관계자도 범죄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려서다.

11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6일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프랑스는 나를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고소해야 한다”며 프랑스 수사기관이 자신을 체포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두로프는 지난달 프랑스 공항에서 프랑스 검찰에 체포된 후 보석금 500만 유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 인스타그램 캡처

로(74억 원)를 내고 석방됐다. 현재는 텔레그램 내 아동 성착취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하고 수사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범죄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예비 기소된 상태다.

텔레그램 측은 “어떤 국가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서비스 자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스마트폰 이전 시대의 법률로 플랫폼 내에서 제삼자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 해당 플랫폼의 CEO를 기소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CE

O의 체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두로프가 체포된 후 전세계적으로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를 제3자인 플랫폼 경영진에 물을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명목 하에 각국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는 정부의 검열과 사찰 또는 기밀 유출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됐지만 동시에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마약 밀매와 자금 세탁 등 각종 범죄가 모

의되는 기반이 됐다.

미국의 경우 현재로서는 플랫폼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경영진을 분리할 수 있는 통신품위법(CDA) 230조로 플랫폼 경영진을 보호하고 있다. CDA 230조는 인터넷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핵심 조항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의 운영 방식을 크게 좌우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 플랫폼이 사용자들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플랫폼 운영자들이 과도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IT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이용자들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을 때, 플랫폼은 이를 단속할 책임을 갖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만일 플랫폼 문제를 경영진에게 묻게 된다면 이는 경영권 침해와 함께 플랫폼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할 수 있는 만큼 문제적이라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면에서 유사한 ‘중대재해 처벌법’의 실효성이 계속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 또한 눈여겨볼만 하다고 설

명한다. 오병한 경기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한 규정과 각 기업 간 이행 능력 차이 등 다양한 문제를 품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후 중대재해 사망 사고 수는 2022년 115명에서 2023년 12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최근 미국의 CDA 230조가 처한 현실과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걸맞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CDA 230조는 최근 플랫폼을 통한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의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브루스 데이즐리 전 트위터 유럽·중동·아프리카 담당 부사장은 영국 가디언지에 기고문을 내고 “플랫폼 상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IT 기업들을 움직이려면 경영진 개개인을 직접 겨냥해야 한다”며 “개인적 제재 위협이 기업에 대상으로 한 벌금 위협보다 경영진에게는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IT 관계자는 “경영진을 타겟으로 한 법은 경영진의 책임 회피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만드는 데에 조력할 것”이라며 “플랫폼을 통해 일어난 성착취, 마약밀매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SKT, ‘AI 동시통역 솔루션’ 고객 확대 속도

‘트랜스 토키’ 서비스 본격 확장
부산교통공사·영남대 등 공급 계약
영어·일본어 등 총 13개 언어 지원

SKT가 인공지능(AI) 동시 통역 솔루션 ‘트랜스 토키’ 서비스를 본격 확장한다.

SK텔레콤은 부산교통공사, 영남대학교, 신한은행과 ‘트랜스 토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 출시된 ‘트랜스 토키’는 외국인 관광객이 투명 스크린 앞에 설치된 마이크에 본인의 언어로 질문하면 한국어로 번역된 문장이 안내데스크 담당자 스크린에 표시되는 서비스다. 이후 담당자가 한국어로 답변하면 이 내용이 실시간으로 관광객 언어로 변환돼 모니터에 나타난다. 현재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총 13개 언어를 지원한다.

SK텔레콤은 부산교통공사와 함께



서울시 성동구 소재 신한은행 한양대학교 지점에서 외국인이 ‘트랜스 토키’를 활용해 직원과 상담하고 있는 모습. /SKT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에 ‘트랜스 토키’를 설치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트랜스 토키’를 운영한다. 관광객 이동이 많은 위치에 ‘트랜스 토키’를 설치해 역 고객 센터 방문 없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영남대학교와도

손을 잡고 지난 7월부터 AI(인공지능) 동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영남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방문이 잦은 ‘글로벌인재대학’, ‘유학생팀’, 학사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업학적팀’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학생들의 호응이 높은 점을 고려해 SK텔레콤과 영남대학교는 ‘트랜스 토키’ 확대 도입을 협의 중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한화그룹, 추석 앞두고 협력사 대금 1900억 조기 지급

대금, 평소보다 최대 59일 앞당겨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 대금 약 1900억원 가량을 조기 지급하고 추석 명절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11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계열사별로 (주)한화 151억원, 한화솔루션 141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96억원, 한화시스템 232억원, 한화오션 833억원 등 약 1900억원의 대금을 평소보다 최대 59일 앞당겨 현금으로 지급한다.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지역특산물 등을 구매해 사내 상주 협력업체 및 용역직원, 주요 고객들에게 명절 선물로 증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지역 특

산물 구매 금액만 총 51억원에 이르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산 농수산물 소비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약 55억원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추석 격려금으로 지급한다. /양성운 기자 ysw@

HS효성, ‘별·나무 의미’ 담은 새 CI 선포

“세상, 더 나은 곳 이끌 것” 의지

HS효성이 ‘별’과 ‘나무’의 의미를 담은 새로운 CI와 비전을 선보인다.

HS효성은 ‘Masteria’라고 명명된 새로운 CI와 비전을 공개하며 과학, 기술 및 집단 지성의 힘을 바탕으로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11일 선언했다. Masteria는 나무(木)를 뜻하는 라틴어 ‘materia’와 별을 뜻하는 ‘aster’를 블렌딩(blending)하여 master, material 등의 중의적 의미를 담아 만든 합성어다.

새로운 CI는 ‘세상을 이끄는 별(Leading Star)’과, ‘가치 나무(Value Tree)’를 상징하는 사각별 형태와 색으로 디자인됐다. 이는 HS효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상징으로서, 그룹 창업자들의 철학과 새롭게 출범한 HS

효성의 1기 경영진들의 비전을 결합한 디자인이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새로운 CI 공개를 맞아 “HS효성은 창업자이신 선대회장님들이 강조하셨던 ‘산업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산업입국(産業立國)의 철학과 60여 년을 이어온 효성의 역사를 계승해 나아감과 동시에, 인류를 위한 다양한 가치창출과 정도경영을 통해, 모든 Stakeholder(이해관계자)의 행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도전의 지평을 열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HS효성은 ‘새벽별’이라는 ‘효성’의 사명에 담긴 뜻을 이어받아 ‘세상을 이끄는 별(Leading Star)’의 의미가 담긴 CI를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SDS “AI 소재, 웹드라마 보실래요?”

‘자, 이젠 AI작이야’ 제작해 공개

삼성SDS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소재로 한 웹드라마 ‘자, 이젠(Gen) AI(시)작이야’를 제작해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자, 이젠 AI작이야’는 종합 콘텐츠 스튜디오 플레이리스트와 공동 제작한 오피스 코미디 웹드라마다. 삼성SDS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선 공개되며,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플

레이리스트 오리지널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6부작으로 제작된 이번 웹드라마는 사무용품 회사 사별문구의 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를 쉽고 빠르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특히 삼성SDS의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 ‘패브릭스’ ▲협업 솔루션에 생성형 AI를 적용한 ‘브리티 코파일럿’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에피소드가 전개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